'Trapiche Single Vineyard Chardonnay Finca El Tomillo'

트라피체 싱글빈야드 샤르도네 핀카 엘 토미요

Trapiche Single Vineyard Chardonnay Finca El Tomillo

지역	아르헨티나 〉 멘도자 〉 투푼카토		
포도품종	샤르도네 100%		
알코올	13.8%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0-12℃		
테이스팅 노트	엘 토미요 빈야드의 특징을 드러내는 프레쉬한 텍스처, 스파이시한 풍미와 산뜻한 미네랄리티를 느낄 수 있는 와인으로, 우아한 피니쉬가 인상적인 화이트 와인이다.		
페어링 TIP	흰육류/익힌해산물/흰살생선/익힌채소/부드러운치즈/밀가루음식(피자,파스타외)		

당도	DRY					SWEET
	1	2	3	4	5	
바디	LIGHT					FULL
	1	2	3	4	5	

제품설명

2003년 부터 시작된 떼루아 시리즈는 매년 트라피체의 전 수석 와인메이커인 Daniel Pi(다니엘 피)와 그의 팀이 트라피체의 본질인 고품질 말벡의 다양성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트라피체와 협약을 맺고 있는 80개의 싱글 빈야드에서 3개의 빈야드만을 선택하여 와인을 생산하며 시작되었다. 트라피체 싱글 빈야드 와인은 그 희소성과 뛰어난 퀄리티,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Wine for Smart Trendsetter라는 애칭으로 사랑받고 있다.

트라피체 싱글빈야드 샤르도네 핀카 엘 토미요는 트라피체 싱글빈야드 떼루아 시리즈에서 두번째로 선보이는 화이트 와인으로 샤르도네 100%로 만들어 졌으며, 2020년 빈티지의 경우 2022 제임스 서클링 TOP100 아르헨티나 와인 3위에 선정된 바 있다.

수상내역

2022빈티지 디켄터 Decanter 94점
2022빈티지 팀 아킨 Tim Atkins 94점
2022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6점

와이너리

안데스 산기슭의 멘도자에 위치한 트라피체는 1883년에 설립된 이후 내수/수출 물량 1위로써 명실공히 아르헨티나 대표 와이너리로 인정받았다.
120여 년의 긴 역사 속에서도 개척정신과 혁신적인 마인드를 유지해온 트라피체는 세계적인 와인 컨설턴트인 미셸 롤랑과 합작으로 '이스까이'란 제품을 만들어 내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아르헨티나 와인의 위상을 드높였다.
또한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권위의 와인 품평회인 IWSC에서 올해의 아르헨티나 와이너리(Argentina Wine Producer of the Year) 트로피를 4회 수상하였으며 (2004, 2006, 2011, 2012), 2007년부터 2013년까지 5차례나 임팩트 매거진의 "Hot Brand"를 수상하면서 품질과 대중성 모든 부분에서 그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말벡' 열풍의 선도자로서, Wine Spectator Top 100, Wine Enthusiast Top 100에 선정된 '트라피체 싱글빈야드 말벡'부터 1년 동안 전 세계 250만 병이 팔린 '오크캐스크 말벡'과 같은 대중적 와인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아르헨티나 와인'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